

망우당 곽재우의 한시를 통해 본 閒酬酢의 情趣와 그 의미

김 종 구*

- I. 서론
- II. 낭만적 서정 및 자연 합일
- III.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통한 깨달음
- IV. 超世와 仙遊의 즐거움
- V. 결론

국문초록

紅衣將軍 망우당 곽재우는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활약하여 큰 공을 세웠지만,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處士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의 한시는 대개 임진왜란 이후 망우정 은거 시절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에 우리는 곽재우를 의병 활동과 관련해서만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고는 의병장 곽재우의 일상과 풍류, 한수작의 정취를 살펴보았다.

곽재우의 한시에 나타난 정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낭만적 서정 및 자연과 합일하는 정서를 지녔다. 곽재우는 歸去來하여 뱃놀이를 즐기거나, 산수를 통해 조화와 합일하는 정취를 한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둘

*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 수석연구원 / piny0928@hanmail.net

째, 광재우는 자유로운 일상을 즐겼고, 고요한 삶을 통해 깨달음에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경험했기에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희망이 컸다. 이러한 삶속에서 그는 지극한 고요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성인의 경지에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승화시켰다. 셋째, 그는 당대의 불우한 정국과 세상을 벗어나, 신선처럼 노니는 즐거움을 한시에 드러냈다. 그는 당대의 의병장들이 모두 불우한 終局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봤기에, 더욱 세상의 혼란함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광재우의 이러한 정취는 전쟁 경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가 일상에서는 성리학에 중심을 두었고, 나아가서는 老莊의 수양을 했던 것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한수작은 아름다운 산수, 망우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류의 최고의 경지를 소박하게 향유하고 있었다. 광재우의 한시에 나타난 한수작의 정취는 낭만 · 서정 · 자연 · 합일 · 자유 · 일상 · 고요 · 超世 · 仙遊가 융합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망우당, 광재우, 閑靜齋, 서정, 자연 합일, 일상, 고요, 超世, 仙遊

I. 서론

망우당 객재우(1552~1617)는 임진왜란 시기에 진주성전투와 화왕산 전투 등에 참전한 의병장이다. 객재우에 대한 기억과 연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본 논의는 전쟁의병장의¹⁾ 객재우 보다는 일상과 閒酬酢²⁾의 삶을 노닌 처사인 객재우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그가 전쟁의 영웅이었기에, 그 일생과 문학을 들여다보면 남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는 남명 조식의 외손서이자, 동강 김우옹과는 동서지간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생애는 修學期 · 義兵活動期 · 隱逸期の 3기로 나눌 수 있다. 그의 한시는 27제 36수로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한시의 유형은 오언절구 8수 · 오언율시 1수 · 오언고시 3수 · 칠언절구 7수 · 칠언율시 10수 · 칠언고시 10수 정도이다.³⁾ 그의 시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일

- 1) 본 논의의 초점은 우선 남명의 高足인, 망우당 객재우에 있다. 다음으로 전쟁을 체험한 의병장의 일상에 관심을 가진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당대 남명학파의 일상과 출처관을 확인할 수 있고, 현실인식과 비판정신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전쟁 영웅이 가지는 현실과 일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문학의 특수성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 2) 풍류는 긴수작과 한수작으로 나뉜다. 繁酬酢은 爲己之學의 성리학 공부이고, 閒酬酢은 시문 · 예술 · 취미 · 기행 등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한수작을 향유하고 있었다.(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退溪學論集』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77쪽. 참고.) 이황은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진실로 긴수작만 있고 한수작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이 황, 『퇴계집』 10, 「答李仲久」, “事爲固有繁酬酢, 其無有閒酬酢乎?”)라고 하여 한수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한수작의 정서가 객재우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3) 본고는 객재우의 한시를 중심으로 하되, 한수작의 정취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산문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산문을 통해 한수작의 정취를 잘 확인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상소문과 임관 기록과 관련되어 있어 자료의 한계점이 있다. 산문에 나타난 것 역시 간단하게 은일을 회망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한시 역시 함축적인 자료이고, 그 서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 한수작의 정취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그의 한시는 망우정에 은거한 시기에 창작된 것이므로 주요한 분석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와 홍우흠 국역의 『수정 국

상과 한수작의 정취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문집에서 간간히 드러나고 있는 삶의 자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시는 특히 忘憂亭에서 은거할 때 많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객재우 한시에 나타난 한수작 및 기행의 시 · 공간이다.

〈표 1〉 망우당 객재우 한시에 나타난 한수작 및 기행의 시 · 공간

순번	작품명	한수작 공간	유람 및 기행 공간	비고
1	강정으로 돌아옴	(강정, 강사) 망우정		
2	감회를 읊음(3수)	고요한 밤, 달 밝은 곳		
3	가야에서 석천의 운자를 빌려 씀		가야산	홍류동
4	우연히 읊음	넓은 들, 긴 강		망우정(추정)
5	배대유가 쓴 「창암강사」시의 운자를 빌려 씀			창암, 망우정
6	중양절에 성이도와 강정에서 만남			망우정(추정)
7	처음 창암강사를 지음	망우정		강, 밝은 달
8	강사에서 우연히 읊음(2수)	망우정		
9	감회를 읊음	雲山 (구름긴 산)		
10	완평부원군 이원익에게 드림	밝은 달이 뜬 밤		이완평의 시 참조
11	가야산사에서 사위 성이도의 운자 빌려 씀		가야산 사찰	밝은 밤, 푸른 숲, 고요함, 절개
12	가야산을 내려오다		가야산	고요함, 신선세계

역 망우선생문집』(신우, 2003.)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국역은 홍우흠의 글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에 없는 원전은 홍우흠의 국역을 참조했기에(원전 제시하지 않음) 부득이 원전 각주 기입을 못한다.

13	가을밤에 뱃놀이 함	달이 밝은 가을밤, 뱃놀이		낭만
14	경술년 늦가을 가야산에 머물 때 골짜기 어귀에 이름		가야산, 골짜기	가을 산, 고운 최치원과 동일시
15	주인에게 줌	창 앞, 둥근 달		한가함, 고요함
16	무제 두 수	새벽		
17	강가에서 우연히 읊음	강 위의 맑은 바람, 산 속의 밝은 달빛		망우정 추정
18	영암에서 사위 신응을 만남		영암	시골과 어부, 매화연
19	강사에서 우연히 읊음(3수)		망우정	고요, 담담, 거문고, 신선, 달빛, 바람, 냇시, 소요,
20	감회를 읊은 2수	한가한 봄		소요, 오죽, 절개
21	상사 곽진의 운자를 빌려 지음	달을 대하고 바람 쐬며		

위의 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산과 그 주변 사찰에서 그의 한수작이 일어나고 있다. 가야산은 만년에 최치원이 가족을 데리고 은거한 산이다. 그러므로 은거를 희망하고 있는 곽재우에게는 중요한 산으로 와 닿게 된다. 곽재우는 가야산을 유람을 하거나, 오래 머물면서 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忘憂亭에서 그의 한수작이 일어나고 있다. 망우정은 곽재우가 비슬산 은거생활 이후, 1602년 영산현 남쪽 蒼巖津 강가에 지은 정자이다. 지금 소재지는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이다. 곽재우가 忘憂堂의 호를 사용한 시점과 동일하다. 망우정은 곽재우의 노년 생활의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한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한시가 망우정의 은거생활에서 창작된 것이므로, 망우정은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의 한수작의 공간과 대상은 밝은 달 · 고요한 밤 · 창 앞 · 뱃

놀이 등 망우정과 주변 산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쟁 영웅 의병장인 곽재우의 한수작은 거창한 연회나 놀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혼자 즐길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었다. 이는 그의 은거생활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의 한수작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의 은거의 목적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곽재우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병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장희⁴⁾와 김해영⁵⁾은 의병활동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김강식⁶⁾ · 이수건⁷⁾ · 박병련⁸⁾ · 최효식⁹⁾은 곽재우의 의병활동의 정치적 역할과 사회적 기반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문학과 관련된 것이다. 조종업¹⁰⁾ · 홍우흠¹¹⁾ · 김주한¹²⁾ · 김남규¹³⁾는 시문학 · 예술성 · 자유추구¹⁴⁾ · 문학관에 관해 논의했다. 셋째, 사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동환¹⁵⁾ · 김시황¹⁶⁾ · 최석기¹⁷⁾ · 박기용¹⁸⁾ · 양은용¹⁹⁾은 도교 · 居家雜訓 · 절의 ·

-
- 4) 이장희,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 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27~37쪽.
 - 5) 김해영,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활동과 시기별 동향」,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173~205쪽.
 - 6) 김강식,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운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 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5, 39~75쪽.
 - 7) 이수건, 「망우당 곽재우 의병활동의 사회 경제적 기반」, 『남명학연구』 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5, 7~15쪽.
 - 8) 박병련, 「망우당 곽재우의 정치사회적 기반과 의병활동」,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403~433쪽.
 - 9) 최효식, 「임란기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항진」, 『신라문화』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277~289쪽.
 - 10) 조종업, 「忘憂堂의 시연구」,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1~13쪽.
 - 11) 홍우흠, 「망우당 곽재우의 문학에 구현된 의기정신과 예술성」,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327~368쪽.
 - 12) 김주한, 「망우당 곽재우 문학의 자유추구 시론」,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303~325쪽.
 - 13) 김남규, 「忘憂堂 文學 研究」,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14) 김주한은 공자의 爲人由己의 자유를 중심으로 생平和 개념을 제시하고, 시를 분석하고 있으며, 시론의 성격을 가진다.
 - 15) 이동환, 「郭忘憂堂의 道學의 精神構造와 그 현실주의적 성향」,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15~37쪽.

양생에 관해 논의했다. 그 외 일반 대중²⁰⁾을 위한 서책도 있다. 특히 윤호진²¹⁾의 「忘憂堂 漢詩에 나타난 俗과 仙, 그리고 節義」²²⁾에서는 절의를 중심으로 두고 선과 속을 넘나들고 있는 한시를 드러내고 있어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곽재우에 대한 의병과 도교 사상에 대한 것이 주류이다. 문학의 경우 일반적인 논의와 심미성에 관한 연구로 압축된다. 본 논의는 여기서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우선 남명의 高足弟子로서의 곽재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의 의병장인 전쟁 영웅에 대한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조건을 함의한 곽재우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다.

주지하다시피, 곽재우는 이와 같은 업적으로 정계의 중앙 요직에 벼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출사를 거부하고 은일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은일지사를 선택한 곽재우의 일상과 삶은 분명 특

-
- 16) 김시환, 「郭忘先生 居家雜訓 연구」,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39~50쪽.
 17) 최석기, 「망우당 곽재우의 절의정신」, 『남명학연구』 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6, 103~142쪽.
 18) 박기용, 「망우당 곽재우의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표출 양상과 그 인식」,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237~270쪽.
 19) 양은용, 「망우당 곽재우의 양생사상」,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369~402쪽.
 20) 그 외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해영, 『『忘憂集』, 年譜의 자료적 성격』, 『남명학연구』 3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1, 203~235쪽.
 이영숙, 「忘憂堂 郭再祐의 유적을 찾아서」, 『선비문화』 34, 남명학연구원, 2018, 73~86쪽.
 설석규, 「남명문도를 찾아서 : 天降紅衣將軍 - 망우당 곽재우」, 『선비문화』 7, 남명학연구원, 2005, 102~113쪽.
 김해영, 『망우당 곽재우』, 경인문화사, 2012.
 남명학연구원 엮음, 『망우당 곽재우』, 예문서원, 2014.
 21) 윤호진 논의의 핵심은 절의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 있다. 비록 선과 속의 관계를 논의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수작의 정서, 일상적 삶과는 거리가 있고 방향성이 다르다.
 22) 윤호진, 「忘憂堂 漢詩에 나타난 俗과 仙, 그리고 節義」, 『남명학연구』 49,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6, 75~98쪽.

별한 모습이 존재할 것이다. 그가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한가하게 일상을 즐기는 모습 역시 중요하다. 즉 본 논의는 전쟁 영웅 의병장인 곽재우의 그 일상과 생활 및 풍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 영웅이 출사를 거부하고 은일을 선택했다면, 중요한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다른 척도가 있을 법하다. 그래서 풍류 중에 한수작의 정취를 밝힌다면, 곽재우의 진정한 삶과 목표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곽재우가 남긴 한시를 통해 임진왜란 의병장인 그의 일상과 한수작의 정취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술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한시에 나타난 낭만적 서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그가 지향한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고통과 정국의 불안으로 초세적 삶과 선유를 즐기는 모습을 밝힌다. 이로써 곽재우의 일상과 한수작의 정취는 임진왜란의 전쟁 영웅인 의병장²³⁾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II. 낭만적 서정 및 자연 합일

주지하다시피 紅衣將軍으로 불린 곽재우는 의병장이었다. 그는 전쟁의 공포 · 죽음 · 위급한 정서를 그 누구보다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전쟁 체험²⁴⁾이라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그의 정서는 불안했을 것이다. 그

23) 임진왜란의 의병장의 일상이기에 중요하고, 전쟁 영웅이 관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낸 일상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 일상 중 또 풍류의 최고 경지인 한수작을 살피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 의미가 있다. 선비의 평범한 일상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깊이와 넓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곽재우는 벼랑 끝에 선 삶을 한수작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4) 곽재우의 전쟁 체험은 한수작의 풍류를 즐기자 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그리고 당국의 불안한 정국 역시 벼슬이 아닌 은일을 선택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스승 남명 조식처럼 학문에 침잠하여 그 근원을 완성하고자 은일을 하여 긴수작과 한수작의 풍류를 즐기자 했다.

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보다는 산수자연에 대한 애착을 더 가졌다. 곽재우는 전쟁이라는 공간보다는 당연히 아름다운 산수, 자연 공간을 선호하며 조화와 합일의 과정을 겪게 된다.

산수 자연을 완상하며 낭만적 서정을 즐기는 선비는 많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山水癖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몹시 애호하는 경우도 있다. 곽재우는 이 둘 다 해당된다. 그는 원래 산림처사를 희망했다. 이러한 희망은 전쟁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후 그는 조정의 부름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오로지 산수 자연에만 몸담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곽재우의 일련의 삶의 과정은 더욱 산수를 애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낭만적 서정을 느끼며 자연과 조화 및 합일을 이루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다음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삼가 생각하건대, 망우당 곽선생은 일찍부터 안과 밖 가볍고 무거움의 구분을 깨달아, 정시합격을 취소당한 뒤부터는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부친이 돌아가신 뒤로는 자연 속에 숨어살면서 일생을 마치려는 듯 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분투, 적을 물리쳐 시대를 평화롭게 한 뒤 다시 자취를 감추고 홍진 밖에서 초연하게 지냄에 추호도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았다.²⁵⁾

위의 글은 곽재우의 산수벽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곽재우는 1585년 34세에 정시에 2등으로 합격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후 며칠 만에 임금으로부터 합격 취소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곽재우가 제출한 글 가운데 時宜에 저촉되는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과거시험에 3번 참가한 기록²⁶⁾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곽재우는 부친상 이후에 과거에 뜻

25) 홍우흠, 곽재우, 「연보발문」,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04쪽.(앞서 밝혔듯이 곽재우의 문집이 고전종합DB에 원문(빠진)이 없는 경우, 홍우흠의 국역을 참조했다. 이하 서술 생략.)

26) 곽재우의 「연보」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을 버리고 처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곽재우는 이미 1589년 38세에 돈지강사를 완성했다. 돈지강사는 의령현 동기강 가에 있었다. 그는 부친상을 끝낸 이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강호에서 낚시를 즐기며 일생을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그를 의병장으로 나서게 했다. 전쟁 이후에 곽재우는 다시 자연, 산수에 은거하고 있었다. 곽재우는 국난의 위기에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산수에 은거하여 처사로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시험의 경험으로, 오로지 그 것만을 위한 공부가 싫었고, 국정이 혼란하여 그의 의견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며 물러나, 산수에서 진정한 학문만 탐구하고자 했다.

風輕露白月明秋
雖縱杯觴心自收
弟兄姊妹群孫姪
都載翩翩一葉舟

바람은 가볍고 이슬은 희며 달이 밝은 가을밤,
비록 술상은 낭자하나 마음 절로 조마하네.
형과 아우 자매 외에 여러 손자 조카들이,
모두 함께 흔들리는 일엽편주에 뒀으므로.²⁷⁾

위의 시는 「가을밤에 뱃놀이 함」이다. 곽재우는 가족, 친척과 더불어 船遊를 하고 있다. 특히 가을밤 · 바람은 가볍고 · 이슬이 내리는 달 밝은 시기는 그가 서정적 분위기를 느끼기엔 충분했다. 그는 전쟁을²⁸⁾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기에, 나아가서 낭만적 서정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곽재우가 은거하고 있었던 곳은 항시 배를 띄워 노닐기에 좋았다. 그는 홀로 낚시를 드리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동인과 함께 뱃놀이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망우정 은거생활 시기에 한강 정구와 여현 장현광이 배를 타고 그를 방문했다. 이때는 1607년으로 그의 나이 56세이었다. 다음날, 곽재우는 그들과 함께 용화산 밑에서 뱃놀이를 했다. “만년에는 창

27) 곽재우, 『망우집』 2, 「秋夜泛舟」

28) 곽재우의 산수관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더욱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전쟁 경험은 곽재우로 하여금 더욱 산수에 가까이 가게 해서, 그 낭만적 서정을 느끼게 하며, 자연과 합일하게 하고 있다.

암의 망우정에 계시면서 물고기와 새들과 더불어 스스로 즐기시면서 『주역』, 『춘추』와 성리학에 관한 자료를 탐독했으며, 천문 · 지리 · 음양 · 의약 등에 관한 서적들마저도 섭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밤이 고요하고 달이 밝으면 손으로 다섯줄의 거문고를 타면서 옛사람들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²⁹⁾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곽재우는 산수와 더불어 노닐며 학문을 강학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정적 낭만으로 발현되는 시, 공간 및 대상, 놀이는 고요한 밤의 산책 · 밝은 달구경 · 거문고 연주 · 뱃놀이 등 이었다.

(가) 心田無草穢
性地絕塵棲
夜靜月明處
一聲山鳥啼

마음 밭에는 우거진 잡초가 없고,
천성 땅에는 속세의 욕심을 끊었네.
고요한 밤 달 밝은 어느 곳에서,
이따금 산새소리 들려온다네.³⁰⁾

(나) 棄絕爲爲人世事
滄巖巖上數椽成
陰雲捲處群山出
好雨晴時百草生
月滿宇中神自爽
風鳴波上夢頻驚
逍遙漁釣消塵慮
今日江湖得聖清

하기 위한 속세의 일 다 버려두고서,
창암 바위 위에 두어 칸 집을 지으니.
흐린 구름 걷힌 곳엔 못 피가 솟아나고,
단 비 개일 때면 온갖 풀 돋아나네.
달빛이 난간에 가득하니 정신 절로 상쾌하고,
바람이 물결 위에 울리니 꿈을 자주 깨겠네.
남시질로 소요하여 속세 생각 사라짐에,
오늘에야 강호에서 성대청명 얻었노라.³¹⁾

(가)는 「감회를 읊음」 3수 중에 제2수이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깊은 산속의 사찰인 듯하다. 곽재우가 제1수에서 ‘오늘은 산 속의 승려와 같네.’라고 한 것에서 유추를 해 본다. 그는 비록 도가의 신선술을 가까이 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찾고자 했다. 이는 알인육존천리와 유사하다. 위의 시가 이를 드러내고 있다. 곽재우의 마음에는 우거진 잡초

29) 홍우흠, 곽재우, 「유사」,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357쪽.

30) 곽재우, 『망우집』 2, 「詠懷 二首」

31) 곽재우, 『망우집』 2, 「江舍偶吟 二首」

와 인욕이 없고, 천성에는 속세의 욕심을 완전히 끊고 있었다. 이러한 알인욕존천리의 경지는 자연 합일의 경지와 유사하다. 곽재우는 인욕을 제거한 마음과 고요한 달밤에 어디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조화를 이뤄 온전히 천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시는 낭만적 서정이 발현되며 자연스레 자연 합일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 2구에서 곽재우는 망우정을 지은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즉 속세의 일을 잊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망우정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여기서 창암은 바로 망우정이 있는 공간이다. 구름과 산 · 비 개인 뒤의 풀의 모습 · 달빛이 망우정에 비치는 것 · 낙동강 물결위로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 곽재우는 아름다운 서정을 만끽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낚시를 드리우며 소요를 하니, 속세의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곽재우는 자연과 합일이 되어 聖과 淸을 획득하게 된다. 청은 잡됨이 없는 알인욕의 세계이다. 결국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곽재우의 삶에 대한 희망은 자연에 귀의하여 하나가 되고자 했다. 그 사물의 객체는 솔바람 소리, 둥근 달이 비친 시냇물 등이다. 이러한 사물을 통해 곽재우의 마음은 한가롭고 고요하게 되어, 그가 높은 벼슬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다. 즉 곽재우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천인합일은 誠明의 경지를 이른다.

성명은 『中庸』 제21장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善에 밝은 것을 ‘性(본성의 이치)’이라고 하고, 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진실해지는 것을 ‘教(교육의 힘)’라고 하는데, 진실하면 사리에 밝고 사리에 밝으면 진실해지는 것이다.”³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재우의 학문과 사상은 天人合一, 천도와 인도가 합쳐져서 일체가 되는 것을 지향했고, 그 경지에 올라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특히 아름다운 산수, 망우정의 산수 공간을 통해 낭만적 서정과 자연 합일을 이루고자 했다.

32) 『中庸』,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전쟁은 유학자의 일상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다. 때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긴장을 해야 하고, 때로는 피난을 위해 유학자의 신분은 망각할 때도 있다. 비록 곽재우가 의병장이었지만, 이러한 전쟁의 경험은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빨리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범한 선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곽재우의 일상은 산수 자연을 통해 서정적 낭만을 충분히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유학과 도교의 수양법을 활용하여 산수와 조화, 합일을 이루는 경지를 지향했던 것이다.

Ⅲ.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통한 깨달음

한국 생활사 연구는 미시사·일상사·문화사³³⁾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학과 관련된 일상에 대한 연구도 축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전쟁과 대비된 일상에 대한 중요성을 간파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망우당 곽재우는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특별한 전쟁 체험을 하였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바의 삶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전쟁 체험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일상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끼고 생각했을 것이다.

곽재우는 유학자이다. 비록 수련과 양생법 측면에서 노장사상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가 공부한 책들은 성리학과 관련된 책이다. 그가 자유로운 일상을 원했던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성리학공부와 마음 수양이었다. 이 마음을 수양하면서 소식, 단전호흡을 차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양의 지향점은 고요이다. 고요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좋은 환경이자, 방편인 것이다. 하지만, 곽재우가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33) 생활사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최은주, 「생활사의 시각에서 본 조선시대 한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301~332쪽.)를 참고할 수 있다.

匹馬飄然出國門
誰言一念故山猿
驚時榮寵還思義
稀世君臣不主恩
自詎懷傾心便照
方知目擊道斯存
班荊此日終南麓
槃澗君應亦不設

필마타고 홀쩍 서울을 떠나시니,
누가 말했단고 잊지 못할 고향산천.
영충이 극진할수록 의리를 생각하니,
세상에 드문 공명을 은혜를 위주함이 아니었네.
회포를 기움임에 마음 서로 통함을 스스로 의아했더니,
눈으로 보니 도가 여기에 있음을 바야흐로 알겠구나.
이날에야 반형을 종남산에서 만나니,
즐거운 개울물소리를 그대는 응당 잊지 않으리.³⁴⁾

위의 시는 이덕형의 「贈郭忘憂」이다. 이덕형과 곽재우는 절친한 벗이었다. 그의 시, 「班荊」³⁵⁾이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다. 반형은 초나라의伍舉와 채나라의 聲子가 世交를 맺었는데, 우연히 정나라 교외에서 만나荊草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아,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고사이다. 이덕형은 혼자만 서울을 떠나 고향 산천으로 내려가는 곽재우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곽재우는 임진왜란 이후 여러 차례 임금의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고향 인근에 은일하였다. 그의 『망우집』에는 25개의 소가 있는데, 이는 거의 벼슬을 사양하는 상소문이다. 곽재우가 여러 번 사양한 것 중에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조정에 나아가서 사양한 적도 있었다. 위의 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옛 친구와의 회포를 푼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곽재우는 왜 은일을 하여 자유로운 일상을 꿈꾸게 되었을까?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가) 진실로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을 한 어부로 보시와 벼슬로써 속박하지도 마시고, 직책으로 잡아 두지도 마시고, 강호에서 한가롭게 지내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강호의 한 어부가 국가에 아무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저 각각 봉당을 만들어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 하면서 국가의 존망을 잊은 채 다만 자기 자신

34) 이덕형, 『漢陰先生文稿』 2, 「贈郭忘憂」

35) 반형에 관해서는 『春秋左傳』 「襄公26年」 참조.

만을 위하는 무리들보다는 오히려 차이가 있을 것이옵니다. 엇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살피 주시옵소서.³⁶⁾

(나) 이에 공도 또한 스스로 이름이 높음을 불안하게 여겨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말하되 ‘내 본래 의령의 한 농부로서 진실로 세상에 나와 이름을 알리 뜻이 없었으나 불행하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연히 조그마한 공을 세워 국가에 보답하였다. 지금 적군은 이미 평정되고, 국내는 이미 평안하며, 내 자신은 이미 영예로우니, 나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하면서 드디어 현풍의 비슬산에 들어가 술일을 먹고 곡식으로 지은 음식을 물리치며 도가의 도인법을 익혔다.³⁷⁾

객재우가 은일을 하여 자유로운 일상을 꿈꾼 이유로는 첫째, 객재우는 순수한 강호의 어부를 꿈꾸었다. 비록 과거의 합격을 취소당하고, 부모의 상을 마친 뒤에도 제일 먼저 강호의 어부를 꿈꾸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승전을 일으키고, 전쟁 영웅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꿈은 자유로운 일상을 만끽할 수 있는 강호의 어부이었다.

둘째, 임진왜란을 통해 일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명철보신을 위해서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하여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위의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이후의 국정은 봉당으로 치닫고, 출사를 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예컨대 임진왜란의 무인들은 이몽학의 옥사에 연루되었다. 김덕령과 최담령은 옥사되고 그 외 무인들도 희생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객재우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출사보다는 은일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통해 깨달음에 다가가고자 했다. 객재우는 망우정에 은거하면서 산수를 벗하며 고요한 일상을 즐겼다. 그리고 『주역』, 『춘추』 및 성리학에 관한 자료를 탐구했다. 그는 나아가 천문·지리·음양·의약 등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며 격물치지를 완성하고자 했다.³⁸⁾

36) 홍우흠, 객재우,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76쪽.

37) 홍우흠, 객재우,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315쪽.

(가) 廣野盈青草
長江滿綠波
忘憂心自靜
調火煉名砂

넓은 들엔 푸른 풀 우거져 있고,
긴 강엔 푸른 물결 넘실거리네.
근심을 잊으니 마음 절로 고요함에,
불을 지펴 단사를 제조하네.³⁹⁾

(나) 성인의 고요함은 고요함이 좋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 아니다. 만물이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다. 물이 고요해지면 수염과 눈썹도 밝게 비출 수 있고, 그 평평함이 표준에 맞으면 훌륭한 장인도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다. 물이 고요함으로써 밝게 되거늘 하물며 성인의 마음이 고요함이야 어떠하겠는가? 그것은 천지를 비추는 거울이요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다.⁴⁰⁾

곽재우의 한시에는 유독 고요함과 그러한 정서가 농후하다. 靜, 즉 고요함은 유가와 도가 모두 중요한 수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학』에서, “그칠 데를 안 뒤에 定함이 있으니, 定한 뒤에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⁴¹⁾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학』에서 말한, 知-定-靜-安-慮-得의 단계의 핵심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의 성찰이다.

곽재우는 위의 (가), (나)처럼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러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망우정이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의 『용사별록』에, “날아오는 탄환이 비 오듯 함에 사졸들이 공을 부축하여 산으로 올라가면서 몸으로 탄환을 막았다. 그리하여 적군의 탄환에 맞아 눈앞에 쓰러지고 죽은 자가 12인이나 되었다.”⁴²⁾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의 경험이 더욱 은일을 하

38) 이러한 단계는 Ⅱ→Ⅲ→Ⅳ과 일맥상통하다. 곽재우는 산수애를 통해 서정성과 함일의 단계를 거쳐, 자유로운 일상을 통해 학문과 내적 수양을 지향해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간다. 그리고 긴수작, 한수작의 최고 풍류인 현실을 벗어나 노니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

39) 홍우흥, 곽재우, 『偶吟』,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08쪽.

40) 『莊子』, 「天道」, “聖人之靜也, 非曰靜也善, 故靜也, 萬物, 無足以撓心者, 故靜也, 水靜則, 明燭鬚眉, 平中, 准大匠取法焉, 水靜猶明, 而況精神, 聖人之心靜乎, 天地之鑒也, 萬物之鏡也.”

41) 『대학』, “知止而后, 有定, 定而后, 能靜, 靜而后, 能安, 安而后, 能慮, 慮而后, 能得.”

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지향하며⁴³⁾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 것이다.

망우정은 낙동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으며 (가)처럼 넓은 들과 푸른 풀을 품고 있다. 곽재우는 산수 그대로의 자연을 통해, 특히 강의 푸른 물결을 보면서 고요한 심성을 기르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나)에서 말한바와 같이 곽재우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천하의 몇몇한 표준이 된다. 이러한 마음이 망령되지 동하지 않는 고요와 밝음은 밤에 비친 물가의 달을 통해 더욱 극대화된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가) 誤落塵埃中
三千垂白髮
秋風野菊香
策馬歸江月

잘못 흥진속세에 떨어졌다가,
삼천 발 흰머리 드리워졌네.
가을 바람에 들국화 향기로운데,
말을 달려 강사 달 아래 돌아왔다네.⁴⁴⁾

(나) 虛極靜篤
湛湛澄澄
止念絕慮
查查冥冥

마음 비움을 극진히 하고 몸가짐을 고요하게 하면,
온 세상이 맑고 깨끗해지며.
잡념을 그치고 근심함을 끊으면,
아득하고 까마득한 신비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⁴⁵⁾

(가)는 곽재우의 「歸江亭」이다. 강정은 곽재우가 1602년에 영산현 남쪽 蒼巖津(지금의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강가에 지은 忘憂亭을 말한다. 그는 1600년에 병을 이유로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사직했지만, 이로 인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2년 동안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었고, 그 후 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다가 1602년에 비로소 망우정을 짓

42) 『忘憂集龍蛇別錄』, 「壬辰」, 「四月」, “放丸如雨, 士卒扶公上山, 爭以身蔽之, 中丸斃踏於前者十二人.”

43) 이러한 고요한 성찰은 전쟁 체험의 아픈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작용한다. 전쟁 체험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기때, 더욱 고요한 성찰이 중요하다.

44) 곽재우, 『망우집』 2, 「歸江亭」

45) 홍우흠, 곽재우, 「調息箴」,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49쪽.

고 기거하게 된다. 임진왜란 의병장 이후 1602년이 되어서야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에서 나타나듯이 속세의 불우가 그의 흰머리를 쏟아나게 했다. 그는 망우정에서 세상의 근심을 잊고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이다. 곽재우는 가을의 산수와 망우정 강가에 비친 달을 보며 고요한 성정 함양을 실천할 수 있었다.

(나)는 곽재우의 「호흡을 조절함에 대한 잠언」이다. 평소 그는 “저는 본래 노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헤아리고 강호에 숨어 낚시질이나 하면서 한가롭게 태평세월을 보내려고 했습니다.”⁴⁶⁾라고 한 것에서 강호의 어부가 되길 원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의 삶을 태평하게 노닐고 싶었던 것이다. (나)에서 보듯이 곽재우는 강호에서 마음을 수양하며 고요한 성정을 함양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온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 비로소 그가 지향한 忘憂의 경지를⁴⁷⁾ 얻게 되는 것이다. 비록 조식에 대한 잠언이지만, 자유로운 일상과 고요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곽재우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일상은 누구나 꿈꾸는 삶일 수 있다. 그러나 관직생활을 하는 사대부도 온전한 일상의 자유를 꿈꾸기란 어렵다. 반면에 전쟁이란 특수한 경험을 한 곽재우의 경우는 더욱 자유로운 일상의 중요성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유를 찾아 벼슬 또한 거부할 수 있었다. 곽재우는 전일한 은일처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 그는 고요한 성정을 함양할 수 있었고, 깨달음의 과정을 쉽게 통과했을 것이다. 그는 성리학을 중심에 두고 노장사상의 수양법과 단련법도 연마했으므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완성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곽재우는 유자이므로 현자, 성인의 단계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이다.

46) 홍우흡, 곽재우, 「김덕령장군에게 답한 편지」,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29쪽.

47) 망우정은 임진왜란 이후 곽재우가 지은 정자이자, 망우는 그의 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망우의 큰 역할이 바로 고요한 성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장의 전제와 뒷장의 논의 역시 망우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곽재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고요한 성찰인 것이다.

IV. 超世와 仙遊의 즐거움

유학자의 초세는 일반적으로 ‘청정한 세계의 회구’⁴⁸⁾이다. 유학의 도를 중심에 두고, 맑고 청정한 세계를 꿈꾸기 위해, 아름다운 산수를 찾거나 노장과 관련된 책을 섭렵한다. 곽재우는 조식의 제자이기에 어느 정도 스승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곽재우는 청정한 세계를 지향하며, 나아가 단전호흡과 곡식을 먹지 않는 수련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의 중심은 스승의 영향으로 인해 유학의 도를 지향하고 있다.

(가) “그대들은 한훤당 김굉필 선생과 일두 정여창 선생의 화가 이런데서 싹튼 것을 보지 않았는가? 하물며 전시대의 이러한 현인들에게 미치지도 못하면서 내 어찌 감히 스승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⁴⁹⁾

(나) 일찍이 고향의 자제들에게 말씀하시되 “자신을 다스리기를 마땅히 천길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근신해야 하며, 마음가짐은 마땅히 얼음의 맑음과 옥의 깨끗함과 같이 하라.”고 하셨으며, 또 ‘청정과옥 네 글자는 자신을 위하고 남을 다스림의 최대 비결’이라고 하셨다.⁵⁰⁾

곽재우는 국량이 넓고 학문이 우뚝하여 함부로 남과 더불어 교류하지 않았다.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들에게는 관대한 우정을 베풀었다. 하지만 남의 스승이 되어 작은 봉당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당대의 정국은 임진왜란 때에 활약한 의병장의 수난시대이었다. (가)에서 나타나듯이, 김굉필과 정여창처럼 사화로 핍박당하게 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 곽재

48) 이와 관해서는 이동환의 「퇴계의 시에 대하여」(『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272~279쪽.)를 참조할 수 있다. 청정한 세계는 선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정함으로 각성된 의식의 지향이다. 자연과 소통과 조화 및 합일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곽재우는 아름다운 공간인 仙境과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했던 것이다. 청정한 세계의 회구는 성인의 경지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이다.

49) 홍우흠, 곽재우, 「遺事」,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357쪽.

50) 홍우흠, 곽재우, 「遺事」,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357쪽.

우에게 작은 봉당이 생기면 오해의 소지를 조정에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곽재우는 자체들에게 儒道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했다. 주지하다시피, 곽재우는 『주역』, 『춘추』에 깊이 침잠했고, 기타 성리학에 관한 자료를 탐독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지리·음양·의약 등도 섭렵하고 있었다. (나)에서 알 수 있듯이, 곽재우는 ‘遏人慾存天理’⁵¹⁾를 실천하려고 자체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학』의 실천 강령을 몸소 실천하며, 주변에 감화를 시키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처럼 곽재우의 학문과 사상의 중심은 유학의 도에 두었고, 당대의 수난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그는 청정한 세계를 갈망하고, 超世와 仙遊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都忘塵世事
閑坐困成眠
幸遇情朋話
亦知有宿緣

속세의 일을 모두 잊고서,
한가로이 앉아 곤히 잠들에.
다행히 정든 친구 꿈속에서 만나니,
알겠구나 그대와 전생 인연 있었음을.⁵²⁾

위의 시는 곽재우의 「배대유가 쓴 창암강사 시의 운자를 빌려 씀」이다. 배대유는 1592년 임진왜란 때에 곽재우와 함께 의병을 모아 창녕의 火旺山城을 수비하였다. 1612년(광해군 4)에 司憲府持平에 임명되어 司諫院正言·司憲府掌令·세자시강원의 兼弼善·輔德 및 동부승지·병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仁穆大妃의 폐모론에 적극 참여해서, 1623년 인조반정으로 삭직되었다. 배대유가 남긴 시가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삶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곽재우는 배대유처럼 불운의 의병장으로 앞날을 걸어가기 싫었다. 임진왜란의 공적 후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한사코 거절을 했다. 그는 불안한 정국, 세상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세상의 일은 모두

51) 遏人慾存天理는 ‘遏慾存天’이다. 이는 『맹자』의 大旨이다. 즉 사사로운 욕심을 막아 天理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52) 홍우흠, 곽재우, 「次裴大維題滄江上韻」,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08쪽.

잇고 한가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 위의 시에서 이러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곽재우의 초세는 이처럼 당대의 정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나라의 장유처럼, 권력의 희생양이 되기 싫어서 오히려 노장세계에 관심을 가진척하며, 세상사의 모든 인욕을 제거하고 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 辭榮棄祿臥雲山 謝事忘憂身自閑 莫言今古無仙子 只在吾心一悟間	영화도 사양하고 작록도 버린 채 구름 산에 누워, 세상사 뿌리치고 근심을 잊으니 몸이 절로 한가롭네. 예나 지금이나 신선 없다 말하지 마라, 다만 한번 내 마음 깨달음에 있느니라. ⁵³⁾
--	--

(나) 下有長江上有山 忘憂一舍在其間 忘憂仙子忘憂臥 明月清風相對閑	아래는 긴 강이요 위에는 산이온데, 망우란 한 정자 그 사이네 지어 두고, 근심 잊은 신선이 근심 잊고 누웠으니, 밝은 달 맑은 바람 서로 대해 한가롭네. ⁵⁴⁾
--	--

곽재우는 1601년 50세에 영암에 유배지에 있다가, 다음 해 석방되어 비슬산에 들어가 술있을 먹고 곡식으로 지은 음식을 금했다. 이 후 창암 강가에 정자를 지어, 망우정이라 이름하고 은거하게 된다. 위의 시는 망우라는 현관을 걸고 아름다운 산수를 즐기며, 고기잡이 배 한 척과 거문고 하나로 소요자락하면서, 그때의 심회를 읊은 시이다.

(가)에서 보듯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벼슬 역시 버리고 세상사의 근심을 모두 잊고자 한 그의 모습이 드러난다. 직전의 유배생활이 바로 혼란한 정국의 소용돌이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경우이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곽재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선이 될 터이니, 자신에게 세상의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한 것

53) 홍우흠, 곽재우, 「망우선생연보 삽입시」,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72쪽.

54) 홍우흠, 곽재우, 「망우선생연보 삽입시」,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72~73쪽.

이다.

(나)는 바로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곽재우 자신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의 긴 강과 주변의 아름다운 산 가운데 망우정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공간, 환경에 은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으로 그의 정신적 경계는 현실을 벗어나 청정한 세계, 즉 이상적 공간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곽재우의 초세는 당대의 정국이 그를 가만히 나두지 않았기에, 그는 더욱 초세를 지향했고 몸소 향유하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가) 非賢非智又非禪 栖息江干絕火煙 後人若問成何事 鎮日無爲便是仙	현인도 아니고 지자도 아니며 스님도 아닌 것이, 강 언덕에 깃들어 살며 화식 먹지 아니 하니.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고 뒷날 사람이 묻는다면, 종일토록 하는 일 없으니 이것이 바로 신선이라오. ⁵⁵⁾
--	--

(나) 獨坐中宵鷄叫晨 含光混世擬全眞 爭趨名利滔滔是 守道如今有幾人	새벽 닭 울 때까지 밤새도록 홀로 앉아, 혼세 속에 빛 감춘 채 천진 보전 도모하네. 명리를 추구함은 모두가 한가지니, 오늘날 도를 지킨 이 몇 사람이나 있는고. ⁵⁶⁾
--	--

(다) 신은 화식을 먹지 아니한지 여러 해가 되었사온지라 고요히 산 속에 살면서 배고프면 솔잎을 따먹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며, 밝은 달을 벗하고 맑은 바람을 짝을 삼아 연기와 노을 속에서 소요하면서 속세의 일에 대해서는 뜻이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꼭진하셔서 죽음을 무릅쓰고 서울에 올라오긴 했사오나 벼슬과 봉록을 탐내고자하는 계책을 아니옵니다. 실로 한 번 전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다시 산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옵니다.⁵⁷⁾

위의 시 (가)와 (나)는 「무제」 두 수이다. (가)에서 곽재우는 현자, 지

55) 홍우흠, 곽재우, 「無題 一首」,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15쪽.

56) 홍우흠, 곽재우, 「無題 二首」,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15쪽.

57) 홍우흠, 곽재우, 「당시의 폐단을 진술한 소 - 경술 8월 일 -」,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206쪽.

자 그렇다고 禪家の 스님도 아니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단지 그의 수양은 화식을 먹지 아니하고 조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에서 표현하기를 스스로 신선이라고 했다. 그는 속세를 벗어나 종일토록 하는 일 없이 수양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서는 修道者の 삶을 드러내고 있다. 밤새도록 홀로 앉아 혼탁한 세상에서 天真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천진 세계를 지향하며, 명리를 추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는 수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곽재우가 노장의 수양법을 차용한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유학의 수도자를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당시의 폐단을 진술한 소 - 경술 8월 일 -」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곽재우는 불안한 정국에 출사를 하지 않고 화식을 핑계 삼아, 속세를 떠나 고요히 산 속에서 살고 싶은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속세의 일은 샘물을 마시고, 밝은 달을 벗하며, 바람을 친구삼아 노닐면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결국 그는 임진왜란 이후의 삶을 속세를 벗어나, 청정한 망우정에서 만년을 보내고자 희망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北關將秉鉞
貪官却解銅
見幾能勇退
卽山杳蒼穹
洛濱開精舍
人間謝事功
泝遊乘扁艇
峩洋奏短桐
臨亂萬夫特
投閑一釣翁

북쪽 변방에서 장차 병권을 잡으려는데,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도리어 무기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네.
기미를 알고 용감히 물러나오니,
가야산은 아득히 하늘 아래 푸르더라.
낙동강 기슭에 정사를 지었음은,
인간세상의 만사를 버렸음이니.
조각배를 타고 물결 따라 오가며,
짧은 거문고로 아양곡을 연주하셨네.
난리를 당해서는 萬夫 가운데서도 특별하시더니,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니 일개 漁翁이라네.⁵⁸⁾

58) 곽재우, 「挽詞 成以道」, 『忘憂集』 2

위의 글은 생원 성이도가 지은 광재우를 위한 만사이다. 주지하다시피 만사는 그 사람의 일생이 잘 드러난 갈래이다. 성이도는 광재우의 딸과의 사이에서 萬江 · 萬河 · 萬波 · 萬流 · 萬漈의 5형제를 두었다. 성이도는 1610년, 광해군 2년에 庚戌 式年試 生員 3등 21위로 합격하였으니, 이후 지은 시인 듯하다. 그 역시 修鍊 방법을 터득하여 90세까지 살다 죽었으니, 광재우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듯하다. 1621년, 광해군 13년에 國事가 나날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는 산천을 돌아 다녔다.⁵⁹⁾

성이도의 이러한 삶만 유추해 보아도 장인인 광재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장인에 대한 평 역시 혼란한 정국에 벼슬을 거부하고, 가야산의 최치원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비추고 있었다. 광재우는 가야산을 유람하며 최치원을 짝하고 싶은 시를 남겼다.⁶⁰⁾ 그리고 성이도는 망우정에서 고기를 잡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모습의 광재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광재우는 “그러니 국록을 먹고 배부르게 지내며, 비단옷을 입고 따뜻하게 살면서도 국사의 요긴함에 도움 될 일을 못할진대 차라리 명산에 들어가 술일을 먹고 잣을 씹으며, 샘물을 마시고 구름 속에 누워 세월을 보내겠사옵니다.”⁶¹⁾라고 했듯이, 인간 만사의 욕심을 버리고 홀로 한가로이 지내는 강호의 어부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광재우의 삶을 성이도는 세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광재우에 대한 다른 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물평을 하고 있었다.

광재우는 청정한 공간에서, 세상을 초월하고 신선처럼 노닐기를 즐거워하였다. 그는 유자이었지만, 노장의 수양법을 가져와 수련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성리학에 중심을 두었다. 단지 임진왜란 체험과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세상사의 일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5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참조.

60) 「가야산을 내려오다」와 「경술년 늦가을 가야산에 머물 때 끝까지 어귀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가야산을 신선이 사는 고요한 산으로 인식하고 초세적 공간으로 여겼다. 그리고 광재우는 만약 최치원이 있다면, 자신을 허여해 주기를 바라는 시를 남긴다.

61) 홍우흠, 광재우, 「부르심을 사양하는 소-무신 9월-」,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177쪽.

유선적 기풍은 명철보신하려는 의지도 있었지만, 현실과의 타협을 위해 초세를 선택했던 것이다. 아마도 곽재우가 출사를 하였다면, 정국의 당파 싸움에서 밀려나 유배를 가거나, 온전하게 관직생활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초세와 선유는 낭만적 서정과 자유로운 일상의 극대화로 이뤄진다. 이는 다시 고요한 성찰과 수양을 형성하면서 깨달음에 나아가고, 함께 풍류의 최고의 경지를 접하여 초세와 선유가 될 수 있었다.

V. 결론

곽재우의 주요한 업적은 임진왜란 의병장이다. 하지만 그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러한 일련의 여정과 과정이 한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본 논의는 이러한 곽재우의 일상과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풍류를 유념하여 살펴보았다. 긴수작과 한수작의 풍류는 선비 일상의 중요한 것이다. 은일처사를 지향한 그이기에 철저한 학문은 우선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삶 중 한수작의 행위와 그 문화는 의미가 있다. 특히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친 곽재우이기에 그 한수작을 살펴보면 인생의 중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곽재우는 선천적으로 산수벽이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그의 삶은 망우정에 은거했던 시절, 가장 많은 시를 남기고 즐겁게 보냈다. 그는 산수 자연을 통해 낭만적 서정을 만끽했다. 낙동강 주변을 소요하거나, 뱃놀이를 하거나, 밤에 달을 구경하며 아름다운 서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낭만적 서정을 산수 자연과 조화를 하며, 나아가 합일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즉 천인합일의 경지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자유로운 일상을 꿈꿨다. 그는 전쟁과 대비되는 일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의 일상은 성리와 관련된 서적의 독서와 마음을 수양하는 호흡법이 주류가 되었다. 이러한 일상은 관직을 포기하고 얻은 소중한 기회이었던 것이다. 이 경향은 스승인 조식

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출사를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 탐구와 수양만을 전적으로 했던 것이다. 곽재우의 자유로운 일상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요를 통한 깨달음으로 압축된다. 고요는 현자와 성인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고 고요를 함유한 수양을 통해 깨달음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곽재우는 초세와 선유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의 초세는 전쟁과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초세 역시 마음을 수양하거나 성정을 함양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노장의 수련법을 가져와 생활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었다. 가야산의 최치원이 자신을 허여하면 좋다고 하고 스스로 신선의 놀이를 즐기는 강호의 어부라고 지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곽재우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동료 무인들이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곽재우는 한수작의 최고의 경지를 지향했고,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논의는 임진왜란 의병장이었던 곽재우의 일상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므로, 일반 선비의 일상과 대비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다른 선비 역시 한수작의 풍류를 즐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곽재우처럼 그 중요성을 알고 깊이, 넓게 만끽하는 자는 드문 것이다. 곽재우의 한수작은 거창한 연회 · 시회 · 모임 등이 아니었다. 망우정이 소재한 낙동강의 어느 일부분에서의 생활이었다. 하지만 그는 밝은 달 · 거문고 · 바람 · 뱃놀이 · 소요 등 아주 소소한 사물과 놀이를 통해 한수작의 제대로 된 정취를 누리고 승화시키고 있었다. 곽재우가 전쟁을 체험하고 누린 풍류이었기에, 이러한 한수작은 아주 소중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동계 정온, 부사 성여신 등이 쓴 곽재우 만사와 삼연 김창흡이 망우당의 유희를 지나며 기록한 시에서도 알 수 있다. 곽재우는 이러한 일상 생활 와중에도, 상소문을 올리며 당대 정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인들은 한나라의 장량보다 뛰어난 처세술을 하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었다. 결국 곽재우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그의 현실인식은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곽재우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비의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명 조식에게서 이어 받은 철저한 학문과 실천적 행위는 곽재우를 영원하게 만든 것이다. 만약 그가 출사를 했더라면 비운의 영웅, 의병장이 될 뻔한 것이다. 오히려 그는 학문을 더욱 열심히 했고, 내적인 수양 역시 철저하게 노력했다. 다만 본 논의에서 밝힌 한수작의 정취로 드러났을 뿐이지만, 그의 현실인식과 학문에 대한 노력은 지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의 한수작 풍류를 통해 학문 역시 최고의 지점을 확립했을 것이고, 바람직한 선비의 상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곽재우와 관련 설화, 산문 등 모든 자료를 통해 그가 지향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스레 한수작의 풍류의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 의병들의 기록과 함께 그 일상과 생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 모든 의병들이 곽재우의 삶과 같지는 않다. 그 일선에서 곽재우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죽음을 가까이 한 자들의 일상과 생활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중요한 삶의 의미와 척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7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곽재우, 『忘憂集龍蛇別錄』

곽재우, 『망우집』

이 황, 『퇴계집』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홍우흠 국역, 『수정 국역 망우선생문집』, 신우, 2003.

『大學』

『莊子』

『中庸』

『春秋左傳』

김강식,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운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 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5, 39~75쪽.

김남규, 「忘憂堂 文學 研究」,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시황, 「郭忘先生 居家雜訓 연구」,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39~50쪽.

김주한, 「망우당 곽재우 문학의 자유추구 시론」,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303~325쪽.

김해영,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활동과 시기별 동향」,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173~205쪽.

김해영, 「『忘憂集』, 年譜의 자료적 성격」, 『남명학연구』 3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1, 203~235쪽.

김해영, 『망우당 곽재우』, 경인문화사, 2012.

남명학연구원 엮음, 『망우당 곽재우』, 예문서원, 2014.

박기용, 「망우당 곽재우의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표출 양상과 그 인식」,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237~270쪽.

박병련, 「망우당 곽재우의 정치사회적 기반과 의병활동」,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403~433쪽.

설석규, 「남명문도를 찾아서 : 天降紅衣將軍 - 망우당 곽재우」, 『선비문화』 7,

- 남명학연구원, 2005, 102~113쪽.
- 양은용, 「망우당 곽재우의 양생사상」,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369~402쪽.
- 윤호진, 「忘憂堂 漢詩에 나타난 俗과 仙, 그리고 節義」, 『남명학연구』 49,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6, 75~98쪽.
- 이동환, 「郭忘憂堂의 道學的 精神構造와 그 현실주의적 성향」,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15~37쪽.
- 이동환, 「퇴계의 시에 대하여」,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272~279쪽.
- 이수건, 「망우당 곽재우 의병활동의 사회 경제적 기반」, 『남명학연구』 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5, 7~15쪽.
- 이영숙, 「忘憂堂 郭再祐의 유적을 찾아서」, 『선비문화』 34, 남명학연구원, 2018, 73~86쪽.
- 이장희,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 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27~37쪽.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退溪學論集』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77~217쪽.
- 조종업, 「忘憂堂의 시 연구」,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1~13쪽.
- 최석기, 「망우당 곽재우의 절의정신」, 『남명학연구』 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6, 103~142쪽.
- 최은주, 「생활사의 시각에서 본 조선시대 한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301~332쪽.
- 최효식, 「임란기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항전」, 『신라문화』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277~289쪽.
- 홍우흠, 「망우당 곽재우의 문학에 구현된 의기정신과 예술성」, 『남명학연구원총서』 7, 남명학연구원, 2014, 327~368쪽.

The Artistic Effect and Meaning of Hansujak in the Chinese Poem of Mangwoodang, Gwak Jae-Woo

Kim, Jong-gu

The General, Hong Ui, named "Gwak Jae-woo" with the pen name of Mangwoodang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protecting the country from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leader of the voluntary civilian army. However, he did not move forward into politics, remaining as a classical scholar without a governmental post. Most of his poems were created during the time of retreating in MangWoojung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Existing studies have only examined Gwak Jae-woo in connection with his activity of the voluntary civilian army. However, this study examined his poems through his daily life, refined taste, and the artistic effect of Hansujak.

The artistic effect of Gwak Jae-woo's poetry is as follows: First, his Chinese poems have romantic lyrics and emotions that are united with nature. Gwak Jae-woo reveal his refined taste of harmony and unity through observing landscape and enjoying boating with home-returning in his Chinese poems. Second, Gwak Jae-woo enjoyed a liberal daily life, advancing into enlightenment through the serene life. Since he had experienced war, he had a more hope or aspiration for a liberal life than anyone else. In the life of this kind, he chose

silence. This was sublimated with the enlightenment of a sage. Third, his Chinese poems reveal that he wanted to escape from the unfortunate political situation of those days and enjoy a life of the legendary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Since he saw that all leaders of voluntary civilian army met an ill fated ending, he truly desired to escape himself from the chaos of the world.

This kind of Gwak Jae-woo's artistic effect was intended to get away himself from the pain of the war experience. That's the reason that he cultivated himself with the life of Lao Zi, based on Neo-Confucianism in his daily life. His Hansujak was to practice the ultimate state of tastes for the art, which can be experienced in a beautiful scenery of Mangwoojung in a simple way. The artistic effect of Hansujak is the sentiment that combines romance, lyricism, natural unity, freedom, daily life, silence, keeping aloof from the world and sightseeing.

keywords :

Mangwoodang, Gwak Jae-Woo, Hansujak, emotion, natural union, daily life, Silence, unworldly, relaxing

